



나조 3등 《토타치》
문예동도교지부 리정화



나조 2등 《소고춤》
문예동도교지부 리경화



나조 4등 《줄채방울춤》
문예동오사까지부 김유미



가조 금상 《복춤》
문예동도교지부 정유미



가조 금상 《장고춤》
문예동오사까지부 리려화



가조 은상 《청춘의 기쁨》
문예동니시도교지부 정진



나조 5등 《젊은 무희》
문예동도교지부 량성미



나조 6등 《복춤》
문예동도교지부 송용미

제 4차 무용경연대회

〈독무부분〉



2005.12.17 (土)

名古屋市守山文化小劇場

인사

민족무용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정열을 안고 일본땅 방방곡곡에서 조선무용의 기상을 떨치고있는 전체 무용부 맹원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언제나 높은 목표를 가지고 무용기량을 높여나가는 계기로 하자고 시작한 문예동무용경연대회도 어느덧 네 차례가 되었습니다.

거세찬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찬바람이 부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들은 동포들에게 희망과 랑만을 안겨 주고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민족무용운동을 중단함이 없이 힘차게 벌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무용부 맹원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으로 조국통일운동이 어느 때없이 앙양된 오늘. 통일시대로 동포들을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의 힘있는 수단인 조선무용의 업적과 전통을 계속 계승발전시키고 문예동의 무용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이 경연대회의 성과적개최를 위하여 적극 펼쳐나선 무용부 맹원들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물심량면으로 따뜻한 협력과 지원을 주시는 동포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무용부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무용경연대회

과제춤

〈나〉조 과제춤 민속기본 《부채춤》 2동작

	(1)	(2)	(3)	(4)	(5)
1조	리미행	장영애	신우귀	백명희	정미화
	(6)	(7)	(8)	(9)	(10)
2조	전사직	정영미	최길자	장순미	박청강
	(11)	(12)	(13)	(14)	(15)
3조	리유희	리경화	조미려	오양선	강미란
	(16)	(17)	(18)	(19)	
4조	량성희	김수련	김애리	정순화	
	(20)	(21)	(22)	(23)	
5조	도영희	손흥미	윤량영	리정화	

독무경연(가조)

1. 북춤	문예동도끼이지부 황리마
2. 청춘의 기쁨	문예동교또지부 김선미
3. 청춘의 기쁨	문예동니시도꼬지부 정진
4. 도라지	문예동오사까지부 리려화
5. 창고춤	문예동흑가이도 윤미성
6. 도라지	문예동효고지부 문유미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무용경연대회

7. 무당춤 문예동오사까지부
리화미

8. 짚은 무희 문예동도끼이지부
활향순

9. 조개춤 문예동오사까지부
현유희

독무경연(나조)

1. 북춤 문예동교또지부
리미행

2. 줄채방울춤 문예동도끼이지부
장영애

3. 직포공의 마음 문예동교또지부
신우귀

4. 천암산거리 문예동도끼지부
백명희

5. 조국의 품을 그리며 문예동도끼지부
정미화

6. 도라지 문예동교또지부
전사직

7. 도라지 문예동도끼지부
정영미

8. 도라지 문예동오사까지부
최길자

9. 바라춤 문예동도끼지부
장순애

10. 바라춤 문예동교또지부
박청강

11. 장교춤 문예동효고지부
리유희

12. 장교춤 문예동도끼지부
리경화

13. 소교춤 문예동오사까지부
조미려

14. 소교춤 문예동도끼지부
오양선

15. 소교춤 문예동도끼지부
강미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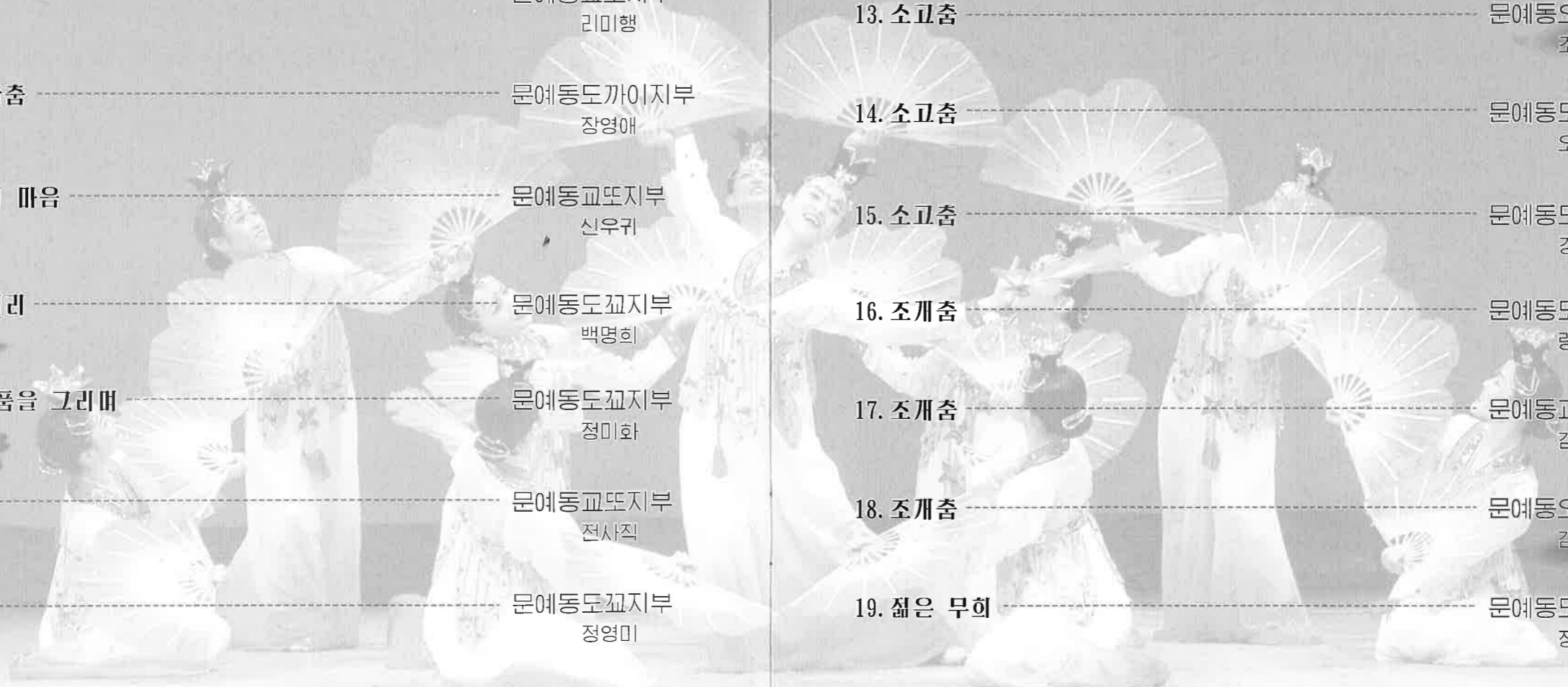
16. 조개춤 문예동도끼지부
량성희

17. 조개춤 문예동교또지부
김수련

18. 조개춤 문예동오사까지부
김애리

19. 짚은 무희 문예동도교또지부
정순화

20. 짚은 무희 문예동도끼지부
도영희



- 21. 북 춤 문예동도교지부
손홍미
- 22. 장고춤 문예동효고지부
윤랑영
- 23. 장고춤 문예동도교지부
리정화

찬조출연

- 문예동도교지부 리명향동무 독무 《나의 초소》
- 1998 3 도교조선중고급학교 졸업
- 2002. 10 평양음악무용대학 통신학부 입학
- 2005. 10 평양음악무용대학 통신학부 졸업
- 2002. 6. 22 문예동1차무용경연대회 독무부문 2등

심사원소개

- 심사위원장 : 현계광 (문예동중앙 부위원장 겸 무용부 부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예술가)
- 심사위원 : 김경애 (문예동효고지부 부위원장)
김선혜 (문예동도교지부 무용부 부장)
김정숙 (문예동도까이지부 음악부장)
김청자 (문예동도까이지부 무용부장)
리선옥 (문예동중앙 무용부 부부장)
리송영 (문예동오사까지부 무용부장)
리지령 (문예동효고지부 무용부장)
리혜임 (문예동도까이지부 부위원장)
박정순 (조선대학교 교육학부 부학부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예술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예술학 학사)
- 서화순 (문예동교도지부 무용부장)
장애림 (문예동가나가와지부 무용부장)
임수향 (문예동오사까지부 부위원장)

(자모순)

(*5월29일 현재 직책으로 명기함)

심사방법과 내용

심사방법

- ◆심사는 10점법으로 소수점 1단위까지로 하며 심사원 13명중 중간점수 9명분을 합하여 9로 나눈 수를 점수로 한다.
- ◆기성작품과 창작작품으로 나누지 않고 경연한다.
- ◆《가》조, 《나》조로 나누어 경연하며 《가》조는 금상, 은상, 동상으로 《나》조는 1등, 2등, 3등으로 각각 시상한다.
- ◆《나》조는 과제춤과 작품의 점수를 비율에 따라 합하여 성적을 낸다.

※ 《나》조 독무경연부문에서는 본 경연의 평가와 함께 문예동중앙의 지도밑에 경연입상자들을 대상으로 2.16경연추진사업을 진행한다.

심사내용

- 예술성 (기량과 형상) 에 대하여 평가한다.
- 조선무용의 기법과 춤가락의 정확성, 장단의 고유한 맛과 호흡, 흥취를 정확히 표현했는가를 평가한다.
 - 작품이 요구하는 사상예술적내용과 감정이 충분히 형상되었는가를 평가한다.

1차 성적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제1차 무용경연대회 성적
2002년 6월 22일 산파루아라가와

독무부문	1등 《소고춤》	문예동후꾸오까지부	리순화
	2등 《나의 초소》	문예동도꼬지부	리명향
	3등 《장고춤》	문예동도까이지부	윤마유
중무부문	1등 《소고춤》	문예동효고지부	
	2등 《금수강산 종을씨구》	문예동오사까지부	
	3등 《소고춤》	문예동도꼬지부	
군무부문	1등 《조국의 진달래》	문예동도꼬지부	
	2등 《재방울춤》	문예동도까이지부	
	3등 《재방울춤》	문예동효고지부	
단체상	문예동도꼬지부	
후원회상	군무 《경북춤》	문예동오사까지부	

2차 성적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제2차 무용경연대회 (독무) 성적
2003년 7월 13일 쓰르미회관

《가》조부문	금상 《도라지》	문예동도꼬지부	김선혜
	《바라춤》	문예동효고지부	문유미
	은상 《조개춤》	문예동도꼬지부	리옥민
	《장고춤》	문예동오사까지부	리려화
동상	《조개춤》	문예동니시도꼬지부	정진
	《소고춤》	문예동가나가와지부	장애림
《나》조부문	1등 《복춤》	문예동도까이지부	안청미
	2등 《나의 초소》	문예동도까이지부	리미순
	3등 《조개춤》	문예동도꼬지부	손홍미
가나가와녀맹본부상	《바라춤》	문예동효고지부	문유미
심사위원회상	문예동도까이지부	

3차 성적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제3차 무용경연대회 성적
2004년 6월 26일 大阪府立青少年會館

독무부문 《가》조	금상 《복춤》	문예동도까이지부	정유의
	금상 《장고춤》	문예동오사까지부	리려화
	은상 《청춘의 기쁨》	문예동니시도꼬지부	정진
독무부문 《나》조	1등 《바라춤》	문예동효고지부	황문희
	2등 《소고춤》	문예동도꼬지부	리경화
	3등 《도라지》	문예동도꼬지부	리정화
	4등 《줄재방울춤》	문예동오사까지부	김유미
	5등 《젊은 무희》	문예동도꼬지부	량성미
	6등 《복춤》	문예동도까이지부	손홍미
중무부문 《가》조	금상 《우리의 금수강산》	문예동오사까지부	
중무부문 《나》조	1등 《소고놀이》	문예동오사까지부	
	2등 《희양닐리리》	문예동효고지부	
	3등 《우리 장단이 좋아》	문예동도꼬지부	
군무부문 《가》조	금상 《아박춤》	문예동오사까지부	
	은상 《모란봉》	문예동교또지부	
군무부문 《나》조	1등 《봄꽃》	문예동효고지부	
	2등 《행복의 북소리》	문예동오사까지부	
	3등 《장고춤》	문예동효고지부	
단체상	문예동효고지부	
조정오사까부분부상	나조 군무 《무녀춤》	문예동교또지부	
녀성동맹 오사까부분부상	가조 군무 《아박춤》	문예동오사까지부	
ブライダルショップ チョンヘ상	가조 독무 《청춘의 기쁨》	문예동니시도꼬지부	정진

무용상식

《부채춤》

부채춤은 부채를 손에 들고 추는 춤으로서 그 유래는 우리 인민들이 오랜 옛날 부채를 생활용구로 쓰기 시작한것과 직접 관련된다.

우리 나라에서 부채춤의 발전은 부채발전과 결부되었다.

리조시기에 이르러 부채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이 그것을 리용하는 범위도 한층 넓어졌다. 당시 사람들속에서는 부채를 더울 때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실용적목적으로만 아니라 하나의 레장으로 가지고 다녔을며 가까운 사람들사이에 레물(선물)로 주고받는 것을 풍습으로 여겼다.

겨울절에는 <모선>이라는 털부채를 가지고다니며 얼굴을 가리우거나 찬바람을 막기도 하였다. 이런것으로 보아 부채가 매우 다양하게 만들어졌으며 그에 따라 부채의 사용범위도 넓어졌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는 부채의 력사가 오래고 사람들의 생활에서 그것을 널리 사용하여온것으로 하여 일찍부터 부채를 들고 추는 춤형식이 발전하여왔다.

부채는 그 자체가 사람들이 직접 손에 쥐고 움직이게 하는것이므로 또 여러가지 형태로 화려하게 만들어 장식품으로 리용하는것이므로 팔놀림을 위주로 하는 우리 나라 무용에서 일찍부터 그것이 춤소도구로 쓰인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편 부채의 사용은 어는 한 력사적시기나 일부 계층들속에 국한한것이 아니였기때문에 부채춤 형식과 그 기법들도 사회에 각이한 계층들속에서 추어온 여러 무용에 널리 리용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게 되었다.

지난날 일부 궁중무용뿐만아니라 민간에서 흥행하였던 사당춤이나 여러 춤에서도 부채를 들었다는것은 이미 알려진것이지만 이밖에도 우리 나라의 적지 않은 무용들에서 부채를 중요한 춤소도구로 삼았던것이다. 그러므로 부채춤은 어는 한 지방에 고유한 향토적인 민속무용과는 달리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이 사랑하고 널리 추어온 민속무용으로서의 특징을 가진다.